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장 연 주(서울대 박사과정) · 서 지 원(한국방송통신대 조교수)

은퇴자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은퇴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재무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알아본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주로 중년기나 노년기 등 특정 생애주기로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제1차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은퇴자 1,63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제적 만족도는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측정되었으며,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은 인지적 측면에서 신뢰(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 호혜성(연간 자원봉사 참여횟수), 구조적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자녀의 금전적 지원/부모·자녀 이외 가족의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배우자와의 동거 여부/자녀와의 동거 여부/자녀와의 연락빈도), 사회적 참여(공식적 모임 참여/비공식적 모임 참여)를 포함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와 소득관련 변수를 통제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거주지, 교육수준, 은퇴 전 일자리 고용형태, 자가 소유 여부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연간 개인 총소득의 소득관련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뢰, 호혜성,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 모임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면, 45세 이상 55세 미만의 은퇴자는 비공식적 모임참여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세 이상 은퇴자는 신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적 모임참여가 공통적인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은퇴자는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75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여부가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면, 신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비공식적 모임참여가 남녀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은퇴자의 경우 호혜성,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자녀와의 동거 여부도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생애주기에 따른 집단별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 효과를 남녀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4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의 경우 비공식적 모임참여는 남녀모두에게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도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집단은 신뢰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공통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여성의 경우 호혜성이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집단은 남성의 경우에만 신뢰,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비공식 모임 참여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다양한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사회 은퇴자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자본 투자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